

전문가 설문을 통한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 발간성과 분석

유근배* · 홍유인** · 신영호*** · 권용우**** · 김찬웅*****

Assessment on Achievements of ‘the Geography of Korea’: Survey on Professional Geographers of Korea

Keun Bae Yu* · Yooinn Hong** · Young Ho Shin***
· Yongwoo Kwon**** · Chan Woong Kim*****

요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 현대 지리지인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사업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수행된 지리지 발간사업에 대하여 지리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리지 편찬체계와 참여 인력, 지리지의 내용과 구성, 시각자료 활용 등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 전문가들은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고,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편찬주기, 소요기간, 분량, 집필진 선정방식, 주제구분과 권역구분 등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에 만족하였다. 편찬방식에 있어 집필진 외에 상위 책임자를 추가할 것, 난이도에 있어 보편적 독자를 더욱 염두에 둘 것, 시각자료 활용에 있어 도안과 표현의 다양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응답자의 직업, 지리지 편찬 참여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지리지 사업성과 평가는 추후 지리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한국지지, 한국지리지, 지역지리, 델파이 기법, 전문가 조사, 지리지, 지지, 발간성과

Abstract : This study sets out to assess achievement of two series of publication titled “the Geography of Korea”, which established itself as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ation on Korea’s geography. For assessment, this study selected Delphi method to survey Korean geographical professionals on the publication by requesting respondents to rate the adequacy of its: publishing system, production team organization, array of topics, target reader, classification of regions, and use of visual materials. The results showed the respondents highly appreciated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s and generally agreed that the past publications had adequate level of: publication frequency, time allowed for writing, number of

이 논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지리지 발간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의 일부를 학술논문으로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임연구원(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byu@plaza.snu.ac.kr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wl@snu.ac.kr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Post 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Visiting Schola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yhgeo@snu.ac.kr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ykwon@sungshin.ac.kr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Master of Arts,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rsid04@snu.ac.kr

pages, selection criteria of authors, range of topics, region classification schemes. On the other hand, dissatisfaction from the respondents came from the lack of chief supervisor over each section or the whole publication. The geographers also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the publication's accessibility to the wider public by adopting easier writings and also requested diversification of visual aid desig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respondent groups by occupations and by past involvement in the publ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foundation to identify the desirable direction of future publications on "the Geography of Korea".

Key Words : Geography of Korea, regional geography, Delphi technique, expert survey, publication assessment

1. 서론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국가 전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지역정보체계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개편,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역정보의 수집 및 활용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지(地誌) 또는 지리지(地理誌)는 우리 국토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리학적 지식을 제공해 왔다. 근대 이전에 지지 또는 지리지는 국토현황의 파악을 위한 치자들의 필독서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Kim, 2007). 지리지는 조선시대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한동안 편찬이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지지』(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0; 1984a; 1984b; 1985; 1986)와 『한국지리지』(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3; 2004; 2005; 2006; 2008)가 비로소 다시 편찬되었다. 이 지리지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지리지로서 자연환경, 경제상, 생활상, 과거와 현재, 지역의 변화상, 미래발전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현 정부 역시 지리지 발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지를 통한 국토이해 증진 및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단계¹⁾에 걸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국토의 변화상 등이 기록되도록 계획 중이다(Im, 2012). 최근

지리학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특별분과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외의 지리지를 분석하고 발전된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Kwon *et al.* (2012)은 8개국 국외 지리지를 비교분석해 세계적 지리지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지리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Oh and Choi(2012)는 한국지리지의 편찬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디지털지리지의 형태로 발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향후 지리지의 편찬체계에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리지의 효율적 발간 또는 성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리지에 대한 평가와 고찰을 통해 기존의 장점을 보전하면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Park, 2004). 또한 지리지는 전통적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제작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기에 앞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지리지의 편찬방법과 접근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지리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지리지를 편찬하거나 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편찬된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특성과 발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차의 지리지 작성에 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리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발간성과의 평가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델파이기법(Delphi Survey Method)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명명되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 축적해온 경험적 지식을 조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Kim *et al.*, 1994).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설문을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1차 조사에서 응답내용이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냈고, 2차 조사의 결과가 1차 조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차로 설문을 종료하였다. 1차 조사는 2010년 9월에, 2차 조사는 2010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은 대한지리학회 정회원 중 지리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 응답자는 199명이었으며 2차 설문응답자는 117명이었다. 이 중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를 읽어보았는가에 대한 설문문의 첫 문항에서 두 책 모두 읽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52명, 12명으로 이들의 답변은 설문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1차 조사에서 74%, 2차 조사에서 68%가 대학교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중등교원이었으며, 지리학에 8년 이상 관여해온 응답자가 1차에서 85%, 2차에서 76%를 점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직업, 지리학 종사기간 등 응답자의 특성별로 지리지의 평가에 있어 어떻게 다른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문내용은 지리지 활용실태, 수요자 만족, 그리고 『한국지리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내용, 체계, 참여분야 등 다방면에서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시작하여 『한국지지』, 『한국지리지』를 따로 총평하는 부분, 새 지리지에 대한 부분, 실제 활

용측면의 평가로 이어졌다. 총 문항 수는 직업 등 응답자 정보를 기입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40문항²⁾이었다.

3.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편찬

1) 『한국지지』

(1) 발간배경

『한국지지』는 건설부 산하의 국립지리원에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에 총론편을 시작으로 1983년부터 1986년에 걸쳐 지방편 4권이 편찬되어 총 5권으로 구성되었다. 대한지리학회 소속의 지리학 관련 교수들이 각 분야의 집필을 담당하였으며, 국립지리원에 당시 설치되었던 지지편찬위원회가 발간하였다.

발간사에서 “...成宗 때 東國輿地勝覽 編纂을 끝으로 우리는 500年 동안 우리 손으로 엮은 地誌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시점에서...국토의 모습과 發展相을 담아... 本地誌編纂事業을 再開하게 되었다”는 감개무량한 어조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관찬지지(官撰地誌)임을 천명하였다. 서문에서는 “단순히 지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지역이 포괄하는 종합적인 모습, 자연/인문현상이 종합된 총화로서 땅과 사람의 인과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편찬 목적을 밝혔다. “지역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주요 편찬 목적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 『한국지지』의 용도로 지역개발과 향토연구 등을 예시하였다.

집필에 주어진 시간과 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이 당시 지리학적 연구 성과가 부족한 가운데 전공분야와 지역에 따라 분담 집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발간사와 서문에서 “...『한국지지』가 여러 집필자들이 동원되다 보니 통일성을 유지하기에 힘들었으며...”, 그리고 “...아직 국토전반에 관한 지리적 연구결과가 미흡하고 짧은 기간이 소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여...”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 치의

땅이라도 아끼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한 시대의 역사기록과 같으며 나날이 변천하는 국토의 제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남겨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으며”, “국토란 조상들의 열이 스며있고, 거래의 일터, 새 역사가 펼쳐질민족의 보금자리”에 관한 지지야말로 집필자들이 희생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임을 천명하였다.

(2) 체계와 구성

『한국지리지』는 총론편 1권과 지방편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역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1984년에는 지방편 1권인 서울·인천·경기편이 발간되었고, 1986년에 4권 광주·전북·전남·제주편을 끝으로 완간되었다. 지방편의 권역은 ① 서울·인천·경기, ② 강원·충북·충남, ③ 부산·대구·경북·경남, ④ 광주·전북·전남·제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의 목차는 지방편 1권인 서울·인천·경기편의 경우, 총설과 권역 내 지역구분에 따라 4장을 할애하고 있다. 각 장의 내부구성은 ① 지리적 기초, ② 역사적 배경, ③ 자연환경, ④ 산업 활동, ⑤ 인구, ⑥ 취락, ⑦ 교육, ⑧ 문화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단순히 지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지역이 포괄하는 종합적인 모습, 자연/인문현상이 종합된 총화로서 땅과 사람의 인과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밝혔지만 다소 정적이고 나열식이었다.

2) 『한국지리지』

(1) 발간 배경

『한국지리지』는 1980년대 『한국지리』 편찬 이후 한국의 지리가 변화되어온 모습을 통합한 새로운 지리지 편찬을 목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 6년여에 걸쳐 편찬되었다. 2003년 3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5월 총론 영문판의 발간을 끝으로 완료되었다. 『한국지리지』 역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추진체계는 『한국지리』와는 달리 대한지리학회 부설 지리연구소에서 주관하여 편찬하였고, 이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집필위원은 이전의 지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각 해당 권

역의 대학교원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지리지』는 국토개발, 학술 진흥, 교육, 정책결정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지리지를 편찬한다는 외형적 발간목적 외에도,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국토공간상에 발생한 변화를 분석하고, 국토전체와 각 지역의 문제점을 성찰한다는 부가적인 목적이 있었다. 국토공간의 성찰에 있어 이전보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려는 노력은 당시 새로운 지리지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주문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리지』는 1980년대에 편찬된 『한국지리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지리지』의 경우에도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원활한 의사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라든지 참여집필진의 효율적인 역할과 일정 분배 등의 운영적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체계와 구성

『한국지리지』는 총론 1권과 5개 권역별로 각 1권을 배정하여 총 6권으로 구성되었다. 권역은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강원권, 수도권의 5권역으로 나누었다. 각 권의 분량은 약 550페이지 정도로, 2003년 충청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한 권씩 발간되어 2008년 총론편의 편찬까지 총 6년이 소요되었다. 호남·제주권의 경우에는 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지역별로 작성한 내용을 하나로 묶었다. 『한국지리지』에서는 『한국지리』에서 강원·충북·충남이 한 권으로 편찬되었던 것과는 달리 강원권과 충청권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각 권의 목차는 총론편의 경우 ① 개요 및 역사, ② 자연환경, ③ 인구, ④ 정주 공간, ⑤ 자원 및 산업, ⑥ 교통, 통신과 유통 및 에너지 공급체계, ⑦ 관광 및 여가활동, ⑧ 사회, ⑨ 국토 및 지역개발, ⑩ 미래전망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순서는 모든 권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각 장의 제목은 각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례로 편찬 초기에 제작된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에서는 제8장이 ‘정치적 성향과 지역정책’이라는 제목인데 반해 수도권의 제8장은 ‘지역의

식 및 정체성'이다. 『한국지리지』에서는 『한국지리지』의 백과사전식의 획일적인 체계 및 서술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제와 내용상의 논리적 전개에 역점을 두었다. 권역별 특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고 권역전체 및 그 하위지역의 현황과 당면과제, 발전 잠재력 등을 핵심적으로 부각시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4. 전문가 설문을 통한 지리지발간 사업 분석

살펴본 지리지의 발간배경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지리지』와 『한국지리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 평가, 활용실태와 수요자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편찬내용, 지리지 활용실태와 수요자 만족, 그리고 『한국지리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1차와 2차 설문 간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응답자들의 특성(경력, 직업 등)에 따른 응답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³⁾.

1) 설문대상 전문가 특성

지리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설문 후반부에 직업, 지리학 종사년, 지리지 집필 참여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1차 설문의 경우 총 응답자 199명 중 인적정보를 제공한 109명의 응답을 활용하였다⁴⁾. 1차 응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교원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교원이 29%를 나타냈다(Figure 1). 지리학에 종사해온 연수는 84%에 달하는 응답자가 8년 이상을 선택하여 응답자 대다수가 지리학 전문가로 판단되었으며, 4년 이하의 경우 4%로 극히 적었다. 또한 지리지 집필 참여경험을 질문하였을 때는 67%가 참여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직접 집필, 보조, 편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였다. 따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편찬참여자의 입장에서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

각 집단의 특성을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지리지 편찬경험, 사용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Table 1). 지리지를 직접 집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대부분 대학교원(10명)과 박사연구원(4명)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원 응답자 중 지리지 편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경험자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교원의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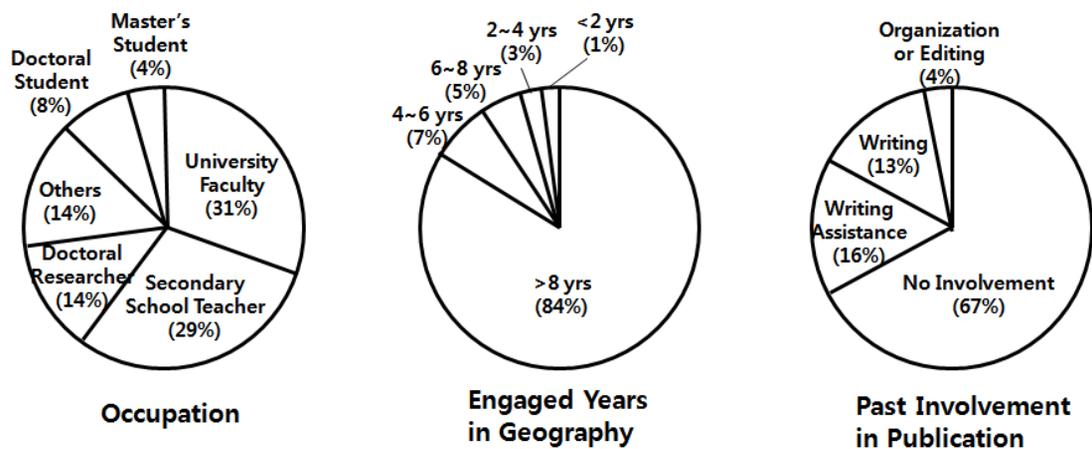


Figur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n first round survey (figures rounded off to zero decimal places, the same rule applies to all other percentage figures in this paper).

설문대상자의 특성(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표기법 동일)

Table 1. First round Survey Respondents' past publication involvement and reading purpose of the Geography of Korea, grouped by occupation (row percent in parenthesis).

1차 설문지의 응답자 직업집단별 지리지 편찬경험과 사용목적(괄호 안 숫자는 row percent)

Occupation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Reading Purpose (Multiple Answer)						
	Writing	Writing Assistance	Organizing or Editing	No Participation	Total	Education	Research	Policy Design	Operation Business	Reference Field	Other Purposes	Total
University Faculty	10 (30%)	2 (6%)	3 (9%)	18 (55%)	33 (100%)	27 (82%)	21 (64%)	6 (18%)	0 (0%)	13 (39%)	3 (9%)	33 (100%)
Doctoral Researcher	4 (27%)	5 (33%)	0 (0%)	6 (40%)	15 (100%)	9 (60%)	13 (87%)	4 (27%)	0 (0%)	3 (20%)	0 (0%)	15 (100%)
Doctoral Student	0 (0%)	1 (11%)	0 (0%)	8 (89%)	9 (100%)	5 (56%)	6 (67%)	0 (0%)	2 (22%)	5 (56%)	0 (0%)	9 (100%)
Master's Student	0 (0%)	0 (0%)	1 (20%)	4 (80%)	5 (100%)	1 (20%)	5 (100%)	1 (20%)	1 (20%)	1 (20%)	0 (0%)	5 (100%)
Secondary School Teacher	0 (0%)	6 (19%)	0 (0%)	26 (81%)	32 (100%)	29 (91%)	16 (50%)	0 (0%)	0 (0%)	13 (41%)	3 (9%)	32 (100%)
Others	0 (0%)	4 (27%)	0 (0%)	11 (73%)	15 (100%)	2 (13%)	9 (60%)	1 (7%)	2 (13%)	7 (47%)	4 (27%)	15 (100%)
Total	14 (13%)	18 (17%)	4 (4%)	73 (67%)	109 (100%)	73 (67%)	70 (64%)	12 (11%)	5 (5%)	42 (39%)	10 (9%)	109 (100%)

편찬경험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각 직업집단별로 복수응답을 통해 확인한 지리지 사용목적의 비중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원과 중등교원의 경우 교육목적으로 지리지를 사용한다는 응답(각각 82%, 91%)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각각 64%, 5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박사연구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은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각각 87%, 67%, 100%) 가장 큰 목적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직업집단별 지리지 활용목적의 차이는 이하에서 제시될 설문결과와 분석에 도움을 준다.

2) 설문결과 분석

(1) 편찬체계와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

지리지의 체제와 형식은 목적과 독자층,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Chi, 2012).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대 지리지의 경우 편찬 당시

의 열악한 환경, 즉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결여된 채 편찬주기, 체제, 기술형식 등이 결정되어 왔다. 또한 편집이나 집필 등이 대한지리학회 소속의 전문가들의 희생적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볼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에 대한 기존의 편찬체계와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편찬주기, 소요기간, 분량, 집필 분담 방식, 집필진 선정방식, 집필진 선정에 있어 고려할 점(선정 원칙), 대상독자층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항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하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Table 2. Preferred publication cycle and allowed time budget for compilation per volume (in %).
 현행 지리지의 편찬주기와 소요기간에 대한 평가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University Facul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Teacher	Secondary School Teacher	Etc	Total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Editing	Involvement
Publication Cycle (Years)	5	26	40	44	20	69	47	45	29	33	0	53	45		
	10 (Current)	74	53	56	80	25	47	51	71	61	100	42	51		
	Other Opinion	0	7	0	0	6	7	4	0	6	0	4	4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llowed Compilation Time per Volume (Years)	>1.5	24	27	33	20	0	7	15	14	17	50	12	15		
	1~1.5	38	27	22	0	28	40	31	43	28	0	32	31		
	1 (Current)	32	33	33	60	59	40	43	43	39	50	44	43		
	0.5~1	6	13	11	20	13	7	10	0	17	0	11	10		
	<0.5	0	0	0	0	0	7	1	0	0	0	1	1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① 편찬주기와 권당 소요기간

지리지를 얼마나 자주 편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리지에 담기는 내용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편찬주기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편찬주기에 있어서는 현행 10년을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1차와 2차에서 각각 51%, 57%로 과반수를 접하였다(Table 2). 그러나 현행보다 짧은 5년을 선호하는 비율도 45%에 이르러 유의미한 비율을 접하였다.

직업에 따른 각 집단별 응답성향을 살펴보면, 대학교원들은 70% 이상이 10년 주기를 선호했으며 이 경향은 설문 횟수를 거듭하며 강화되었다. 박사연구원이거나 박사과정생 집단에서도 여전히 10년 주기가 과반수를 접하지만, 5년 주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40%, 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중등교원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69%가 5년 주기 편찬을 적절하다고 선택하였다. 이는 교육 자료로서의 지리지의 기능을 중시하여 보다 최신자료가 수록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찬참여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직접 집필에 참여하였던 집단의 경우 현행 10년 주기를 선호했으며(71%), 집필보조나 총괄 또는 편집에 참여하였던 집단의 경우에도 10년 주기를 선호했다(각각 61%,

100%). 이들은 지리지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편찬자의 입장에서 편찬주기가 단축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미참여 응답자의 경우 5년 주기가 적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53%에 이르렀다. 따라서 편찬주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편찬주기가 짧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의견 중 언급할 만한 것으로는 일정한 편찬 주기를 갖는 것보다는 시의에 따른 비정기적 개정을 선호하는 주문과 5년 주기의 센서스와 지리지 편찬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권당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 1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각각 43%, 53%를 보였다. 현행 1년으로는 부족하며, 1.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차에서 46%를 보이며 전체 의견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리학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수렴된 2차에서도 40%대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1년 미만의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차와 2차에서 각각 11%, 7%로 소수에 불과했다.

직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학교원, 박사연구원, 박사과정생, 그리고 중등교원의 경우 집필기간을 늘려

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 54%, 55%, 47%로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석사과정생의 경우 현행 1년 주기를 선호했다(60%).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지리지 집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차와 2차 모두 100%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집필자의 입장에서 현행 1년이라는 기간은 적절한 수준이거나 다소 부족함을 시사한다. 현행 1년보다 더 짧은 기간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주도적으로 지리지 집필과 편집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권당 편찬 소요기간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지리지의 분량

지리지의 분량은 편찬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살펴볼 내용이나 주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문 결과, 현행 총10장, 500여 페이지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1차와 2차에서 각각 62%, 76%로 나타났다(Table 3).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22%와 15%였으며,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6%와 9%를 나타내고 있어 분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높았다.

직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현행 분량이 적절한 것으로 과반수가 나타났다. 그렇지

만 중등교원과 박사과정생은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8%, 33%가 나타나 적다는 의견(각각 12%, 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대학교원의 경우 늘려야 한다는 의견(39%)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등교원의 경우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Table 1) 압축된 분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찬참여에 따라서도 전반적으로 현행 분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편찬참여 집단에서는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줄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특히 집필에 참여한 집단은 과반수가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집필진이 충분한 지면을 할애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참여 집단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19%)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16%)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지리정보를 수록하기 위해서는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지만,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다소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의 지리지의 분량은 실제적인 정보량을 늘리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urrent amount of pages (in %). 현행 지리지의 분량에 대한 평가

Amount of Pages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University Facul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econdary School	Etc	Total	Writing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Involvement	No
Very Insufficient (Should Add)	24	0	0	0	6	13	11	14	11	0	11	11	11
Insufficient	15	13	0	20	6	13	11	36	11	25	5	11	11
Just Adequate	53	73	67	80	69	47	62	36	67	75	64	62	62
Excessive	6	13	22	0	9	20	11	7	11	0	12	11	11
Very Excessive (Should Cut)	3	0	11	0	9	7	5	7	0	0	7	5	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4. Current authoring system and preferred future authoring system (in %).
 현행 집필방식과 집필방식의 대안에 대한 평가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Faculty	Universi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Teacher	Secondary School	Etc	Total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Involve
Authoring System	Very Desirable	3	0	0	0	3	0	2	0	6	0	1	2	
	Desirable	29	7	22	20	25	7	21	36	17	25	18	21	
	Neutral	15	33	56	0	28	27	25	29	17	25	27	25	
	Undesirable	47	60	22	80	41	60	48	29	56	50	51	48	
	Very Undesirable	6	0	0	0	3	7	4	7	6	0	3	4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referred Future Authoring System	Add Editor for Each Section	28	44	50	33	43	20	34	20	36	0	37	34	
	Add Editor for Whole Volume	6	11	0	0	7	10	7	0	18	0	5	7	
	Add Editors Both for Each Section and for Whole Volume	50	33	50	67	50	70	52	60	45	100	50	52	
	Others	17	11	0	0	0	10	9	20	9	0	8	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③ 집필방식의 적절성과 대안

지리지의 편찬과정 중 핵심인 지리지 집필과정에 대한 방식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현행 집필방식(각 장을 상위책임자 없이 집필자 단독으로 작성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설문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차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2%, 55%를 점하며 과반수를 보이고 있다(Table 4). 이는 각 설문차수별로 적절하다고 답한 23%, 28%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현 집필방식에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집필방식에 대한 직업별 경향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생(80%), 박사연구자(60%), 대학교원(53%) 순으로 현 집필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가 소수인 석사과정생 집단을 제외한다면, 잠재적 집필진이 될 수 있는 박사연구자와 대학교원 집단에서 현 집필방식에 부정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편찬참여 형태에 따라서는, 집필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1차 설문에서 현 집필방식이 적절하다고 응

답한 경우가 36%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높았다. 이는 집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집필진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집필방식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집단에서도 집필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36%로 조사되어 집필방식의 변화요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필보조와 총괄 등의 협력적 작업을 수행한 응답자들의 경우 집필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각각 62%, 50%) 집필과정에서 상호간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참여 집단에서도 54%가 현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집필방식에 대한 추가질문을 통해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했을 때, 집필진 외에 상위책임자를 둘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Table 4). 부문별 책임자를 두자는 의견이 34%로 나타났고, 부문별 책임자와 함께 총괄책임자를 두어 다중으로 점검하자는 의견이 1차와 2차 조사에서 각각 52%, 59%로 나타났다. 이러

Table 5. Current author selection and preferred value in selecting authors (in %).

현행 집필진 선정방식과 집필진 선정의 중점사항에 대한 평가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University Faculty	Universi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econdary School Teacher	Etc	Total	Writing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Editing	Involvement
Current Author Selection	Very Desirable	6	0	0	20	6	7	6	14	6	0	4	6	
	Desirable	33	21	44	40	38	40	35	36	53	25	31	35	
	Neutral	27	50	33	20	16	20	26	21	6	0	33	26	
	Undesirable	27	29	11	20	38	27	29	14	29	75	29	29	
	Very Undesirable	6	0	11	0	3	7	5	14	6	0	3	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referred Value in Author Selection	1: Regional Diversity	15	27	11	20	16	13	17	29	22	25	13	17	
	2	24	20	22	20	25	33	24	36	22	25	22	24	
	3	12	20	22	40	13	13	16	7	22	25	15	16	
	4	30	20	33	20	16	27	24	21	22	0	26	24	
	5: Consistency over Region	18	13	11	0	31	13	19	7	11	25	24	1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 경향은 직업집단과 편찬참여 형태에 따라서도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집필방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집필진 외에도 집필과 관련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자는 의견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대안으로 지리지 전체를 총괄하는 편집위원회가 집필 위원 전체를 관장하자는 의견과 각 부문별 책임자와 함께 교정위원을 두자는 제안이 있었다.

④ 집필진의 선정

현행 집필진의 선정은 해당 권역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문성의 확보와 함께 해당 권역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행 방식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타났다(Table 5). 1차와 2차 조사에서 현행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41%, 51%로 나타나 부적절하다는 33%와 25%의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집단별과 지리지편찬 참여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였을 때, 중등교원과 지리지 총괄 또는 편집에 참여한 응답자들에서는 집필진 선정방

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 나타났다(각각 41%, 75%). 이는 각각 중등교육계의 관심을 좀 더 반영하였으면 하는 요구와 지리지 편찬 과정 중 권역 배분이 지니는 물리적 제한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필진 선정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권역별 배분과 다양성을 더 중시하는 의견이 41%, 초 권역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더 중시하자는 의견이 43%로 나타났다(Table 5). 양 의견이 팽팽하여 양자의 중요성이 모두 존중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문항에 있어서는 직업집단별 응답성향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직접 집필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다양성에 강조점을 둔 응답자가 64%를 보여 집필진의 지역적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참여 집단은 50%가 일관성과 체계성을 중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권역별 배분을 통한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권역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Preferred target readership (in %). 지리지의 대상독자층에 대한 평가

Target readership	Occupations						Total
	University Faculty	Doctoral Researcher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econdary School Teacher	Etc	
1: General	30	40	56	20	44	47	39
2	36	47	33	0	28	13	30
3	15	13	11	40	19	13	17
4	15	0	0	40	6	20	11
5: Professional	3	0	0	0	3	7	3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⑤ 대상독자층 선정

지리지 대상독자층의 선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리지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지리지의 독자층에 대해서는 70%정도가 전문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였다(Table 6). 이는 일반적으로 관찬지리지로서 정부간행 문서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독자를 위한 지리지, 그리고 정책전문가나 지리학 전문가를 위한 지리지를 이원화하여 출간하자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직업집단별 답변을 살펴보았을 때, 박사연구원과 박사과정생의 경우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문한 것에 비해, 대학교원의 경우 18% 정도가 전문성을 중시해 전체 집단에서 전문성을 중시한 비율(14%)에 비해 높았다⁵⁾.

⑥ 배포형태

지리지의 배포형태에 관한 질문은 서술형 답변을 요청하였다. 『한국지리지』의 배포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지리지 자체의 형태와 발행부수, 내용, 홍보 등으로 정리되었다. 전문가들은 발행부수를 수요에 따라 크게 늘려 구매가 용이토록 하고, 공공도서관이나 각급 학교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에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현행 정부발간 문서의 발행부수가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통적 형태의

인쇄본 지리지 이외에도 PDF 파일, e-book 형태 등의 제작에 대한 요구도 제시되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지리지 외에도 평이하고도 간결한 중고생용, 또는 시민용 축약본을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리지가 지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용어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주석을 충실히 달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이었는데, 『한국지리지』가 국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표준이라는 사실과 함께 관찬지리지로서 ‘동국여지승람’ 등의 전통을 이어가는 권위 있는 저작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영문판에 대해서는 제작목적과 형식,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영문판은 지리지의 단순한 번역보다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설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주를 이루었다. 영문판의 경우 체제, 항목, 서술, 분량 등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으로 종합되었다.

(2) 지리지의 내용에 대한 평가

지리지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 등 광범위하다. 지리지의 편찬목적과 제작진의 특성에 따라 주제 내용은 매우 가변적이며, 서술방식이나 표현 등에서 난이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수의 통치자나 지식인들을 위한 전근대의 지리지와 근대 시민사회의 일반국민을 위한 지리지는 주제와 내용, 서술

Table 7. Breadth of topics (in %). 주제 범위에 대한 평가

Breadth of Topic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University Facul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econdary School Teacher	Etc	Total	Writing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Editing	No Involvement
Much Too Narrow	12	0	0	0	0	9	0	6	0	0	25	8	6
Too Narrow	24	20	33	0	13	21	19	43	6	0	19	19	
Just Adequate	53	67	44	40	66	57	58	50	76	50	55	58	
Too Wide	6	13	22	40	9	14	12	7	18	25	11	12	
Much Too Wide	6	0	0	20	3	7	5	0	0	0	7	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의 난이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편찬 될 지리지의 주제와 내용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제의 범위’, ‘난이도 설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① 주제의 범위

『한국지리지』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크게 개요 및 역사, 환경, 인구, 정주공간, 산업, 교통·유통·에너지, 관광 및 여가, 사회, 지역개발, 미래전망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의 범위에 대해서 적절했다는 의견이 1차와 2차 설문조사에서 각각 58%와 70%로 나타났다(Table 7). 한편 주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차에서 25%, 2차에서 15%로 나타나 각각 17%와 13%인 좁혀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원 집단에서 주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36%로 전체응답의 25%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같이 넓은 주제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학계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더 민감하거나,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 지리학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바람으로 사료된다. 한편 직접 집필에 참여한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주제의 범위가 좁았다는 의견이 43%로 조사되어, 집필 과정 중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지리지가 전반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의 범위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주제의 시

의성 확보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상기 문항의 후속 질문으로 기존의 주제항목 중 더 분화해야 할 항목을 선택하라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지리지 주제 중 산업과 정주공간, 환경, 관광 및 여가 등의 주제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기 때문에 이들 주제의 세분화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권역별로 주어진 분량과 형식에 얽매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권역마다 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난이도와 향후 난이도 설정

난이도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독자층의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지리지의 편찬 목적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리지 내용의 난이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된 2차 조사에 의거하면 적정하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적절하다고 답한 경우가 1차와 2차에서 각각 43%와 70%로 나타났고, 쉽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1차와 2차에서 46%와 11%로 응답했고, 어렵다고 평가하는 반응이 각각 11%와 15%로 나타나 조사 차수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Table 8).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난이도가 적정했거나 조금 쉬운 편으로 나타났다.

직업집단별로 보면, 대학교원, 박사연구원, 그리고

Table 8. Current level of difficulty and desirable level of difficulty (in %). 난이도 설정에 대한 평가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Faculty	Universi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chool Teacher	Secondary School	Etc	Total	Writing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Organizing or Editing
Current Level of Difficulty	Very Easy	24	27	33	20	0	7	15	14	17	50	12	15	
	Easy	38	27	22	0	28	40	31	43	28	0	32	31	
	Just Adequate	32	33	33	60	59	40	43	43	39	50	44	43	
	Difficult	6	13	11	20	13	7	10	0	17	0	11	10	
	Very Difficult	0	0	0	0	0	7	1	0	0	0	1	1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Desirable Level of Difficulty	Much Easier	24	0	0	0	6	13	11	14	11	0	11	11	
	Easier	15	13	0	20	6	13	11	36	11	25	5	11	
	Current Level	53	73	67	80	69	47	61	36	67	75	64	61	
	More Difficult	6	13	22	0	9	20	11	7	11	0	12	11	
	Much More Difficult	3	0	11	0	9	7	6	7	0	0	7	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박사과정생 집단에서 기존 지리지를 쉽다고 평가하였다(각각 62%, 54%, 55%). 반면에 중등교원과 석사과정생의 경우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높았다(각각 59%, 60%). 이와 같은 경향은 속해있는 직업집단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난이도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지리학 연구를 해온 집단의 경우 기존 지리지가 쉽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찬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쉽거나 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후속질문으로 향후 발간될 지리지의 난이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주문이 우위를 점했다(61%)(Table 8). 그렇지만 쉬운 지리지를 편찬하기를 바라는 의견(22%)이 어려워져야 한다는 의견(17%)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리지의 난이도가 적절하지만, 추후에는 더 넓은 독자층을 고려하여 접근성 높은 지리지로 편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리지의 독자층을 묻는 이전 설문 문항에서 보편적 독자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집단별로 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현재 난

이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렇지만 대학교원에서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39%가 나타났으며, 박사과정생은 어려워져야 한다고 응답이 33%가 나타났다. 편찬참여 경험에 따라 볼 때, 직접 집필에 참여한 집단은 50%가 차후의 지리지는 더 쉽게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난이도와 자료선정이 주제와 권역에 따라 상이하고, 문장의 구성방식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난이도에 있어서는 어려운 주문이 있었는데, 일반 독자를 배려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면서도 전문적이고도 심원한 내용을 선별적 절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성을 고려하면서도 학문으로서 지리학의 권위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주공간과 주민생활, 자연환경의 기술과정에서는 상세한 현장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지리지의 구성 체계와 시각자료에 대한 평가

지리지의 권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은 현재 우리 국토에 대한 지역적 구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활용의 측면에서 적합한 지역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따

Table 9. Classification of region and order of topics (in %). 권역구분과 구성순서에 대한 평가

		Occupations							Past Involvement in Publication						
		Faculty	University	Researcher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School	Secondary	Etc	Total	Writing	Assistance	Writing or Editing	Involvement
Regional Classification	Very Desirable	0	0	0	0	3	0	1	0	0	0	1	1		
	Desirable	38	47	33	20	53	33	42	36	33	50	44	41		
	Neutral	21	13	44	80	34	47	32	7	28	50	37	32		
	Undesirable	29	40	11	0	6	13	19	43	39	0	11	19		
	Very Undesirable	12	0	11	0	3	7	6	14	0	0	7	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Order of Topics	Very Desirable	3	7	0	0	3	0	3	7	0	0	3	3		
	Desirable	53	53	67	0	56	20	48	57	50	50	45	48		
	Neutral	18	20	22	60	31	60	30	7	44	0	33	30		
	Undesirable	26	20	11	40	6	13	17	29	6	50	16	17		
	Very Undesirable	0	0	0	0	3	7	2	0	0	0	3	2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리지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지리지의 목차구성이나 사용된 시각자료에 대한 평가는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① 지리지의 권역구분과 각 권별 목차구성 순서

기존 『한국지리지』에서는 총론편을 통하여 국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충청권, 호남권(제주포함), 영남권, 강원권, 수도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권역별 1권씩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권역구분의 적절성을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 중 중립적인 관점을 보이거나(32%) 혹은 긍정적으로 판단한 의견(43%)이 다수를 점하였다(Table 9). 그러나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차와 2차 설문에서 각각 25%, 24%로 나타나 향후 지리지 편찬에서는 권역구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⁶⁾.

직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중등교원은 기존 권역구분에 만족하는 경우가 56%였고,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10% 미만에 불과했던 반면, 대학교원이나 박사연구원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각각 41%, 40%로 전체 집단의 불만족 비율(25%)보다 더 높았다. 편찬참여 형태로 보면, 대부분의 집단에

서 권역구분이 적절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직접 집필에 참여한 집단은 57%가 권역구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의 권역구분은 외형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필에서는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응답자에게서 대안적 의견을 수집하였을 때, 세밀한 지역구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특성상 호남과 제주, 경남과 경북을 나누고, 수도권도 세분해서 다루어야 하며, 큰 변화를 겪어온 도시들에 대해선 좀 더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언들을 요약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도 등 총 16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지리지』의 목차는 (1) 개요 및 역사, (2) 환경, (3) 인구, (4) 정주공간, (5) 산업, (6) 교통·유통·에너지수급체계, (7) 관광 및 여가, (8) 사회, (9) 지역개발, (10) 미래전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체제와 순서에 대해 응답자들은 1차와 2차 설문에서 각각 81%, 90%가 보통 또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

Table 10. Use of Visual aids (arrangement, frequency, design). 시각자료의 활용에 대한 평가

		Most Frequently Used Format				
		Printed Copy	CD-ROM	PDF File (Internet)	All	Total
Overall Arrangement	Very Desirable	0	0	4	17	3
	Desirable	49	60	48	17	47
	Neutral	30	20	24	33	28
	Undesirable	21	20	24	33	23
	Very Undesirable	0	0	0	0	0
	Total	100	100	100	100	100
Frequency (Amount)	Very Desirable	0	0	0	0	0
	Desirable	0	0	0	0	0
	Neutral	47	60	40	0	42
	Undesirable	49	40	48	100	52
	Very Undesirable	5	0	12	0	6
	Total	100	100	100	100	100
Design	Very Desirable	0	0	0	0	0
	Desirable	21	40	21	17	22
	Neutral	47	40	21	17	36
	Undesirable	30	20	54	67	40
	Very Undesirable	2	0	4	0	3
	Total	100	100	100	100	100

였다(Table 9).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1차에서 19%를 보였다가 2차에서는 10%로 낮아졌다. 따라서 내용체계와 순서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현재의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② 지리지에 첨부된 시각자료

지리지에서 활용한 지도와 도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의 활용방식과 활용빈도 그리고 도안(design)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러한 시각자료의 평가는 집필 당시의 인쇄 및 편집 기술 수준과 자원의 제약이 고려되었다.

시각자료의 활용방식이 적절했다는 의견은 1차와 2차에서 각각 50%와 47%를 접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각각 23%와 12%)에 비해 높았다(Table 10). 그렇지만 사용빈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시각자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차와 2차 설문에서 각각 58%, 54%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안이나 색채, 품질 등 시

각자료 표현의 측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1차와 2차 설문에서 각각 43%와 33%로 나타나 적절하다는 답변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으로 시각자료의 활용방식은 적절했으나, 그 사용빈도와 도안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지리지의 배포형태⁷⁾와는 관련이 적은 시각자료의 활용방식이나 사용빈도의 적절성을 질문했을 때는 응답자들은 집단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성향을 보였다(Table 10).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쇄품질 등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도안의 적절성을 질문했을 때, 인쇄본의 형태로 접한 응답자는 32%만이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PDF파일 형태로 접한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58%, 다양한 배포형태를 접한 집단에서는 67%에 이르렀다. PDF사용자 또는 다양한 배포형태를 접한 응답자들이 시각자료의 도안에 부정적으로 답한 것은 자유의견란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용절약과 편의를 위해 2도 인쇄와 흑백사진 등이 이용된 인쇄본을 그대로 PDF파일로 변환시켜 제

공하여 다양한 색채를 활용할 수 있는 PDF라는 매체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각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개진에서 많은 응답자가 시각적 표현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료출처에 대한 명확한 표시, 표현양식(특히 지도)의 통일을 요구하였다. 도안 측면에서는 2도 인쇄보다는 색상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PDF 파일에서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자는 많았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향후 지리지 편찬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IT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생동감있는 지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의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 두 지리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두 지리지가 다른 지리지와 차별되는 장점과 의의로 관찬지리지로서 공적 인증이 주어진 우리나라 대표 지리지라는 점을 꼽았다. 지리학 전문가들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동시에 현장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광범위한 지리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권역별 지리정보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기 때문에 분량과 질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는 지리지라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지지』에 비해 『한국지리지』가 이루었던 개선 사항으로 내용과 체제의 적합성 향상, 시각자료의 표현과 활용성의 증대, 인쇄 및 가독성의 개선 등의 측면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전문가 설문 결과의 결과를 통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5. 요약과 결론

지리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발간성과를 평가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지리지의 편찬체계와 참

여인력, 주제와 난이도, 권역구분과 구성, 시각자료 활용 등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국지리지의 편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설문은 1차에서 199명, 그리고 2차에서 117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대학교원, 박사연구원 또는 중등교원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 74%, 2차에서 68%를 차지하였다. 지리학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의 비율이 각각 85%, 76%를 점해 델파이 기법의 대상요건을 충족시켰다. 1차 조사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고, 1차와 2차 조사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차에서 조사를 종료하였다. 1차 조사는 2010년 9월, 2차 조사는 2010년 10월에 실시되었다.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각각의 발간물에 대한 총평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지지와 한국지리지를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확보한 우리나라 대표적 지리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항목별 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은 편찬주기, 소요기간, 분량, 집필진 선정방식, 주제구분과 권역구분 등의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개선을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필과 편찬 조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집필진 단독 집필 방식에 대해 5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안으로 집필진을 관장하는 상위 책임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91%). 52%의 응답자가 부문별 책임자 뿐만 아니라 총괄 책임자를 함께 두어 이중으로 집필진을 관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지리지 전체를 총괄하는 집필위원회를 두거나 교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찬조직을 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둘째, 지리지의 내용과 배포형태에 있어 보편적 독자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지리지의 전문성과 보편성이 상충 관계에 있을 때에는 보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69%가 응답하였다. 장차 발간될 지리지가 이전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전문가의 22%가 응답하였다. 배포형태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였다. 발행부수 증량, 시민용 축약본의

신규 발간, 각급 도서관 비치 등 학생이나 일반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를 촉구하였다.

셋째, 지리지의 권역구분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쇄물을 탈피한 새로운 매체에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리지의 권역 구분 체계에 대한 변화 요구는 기존 집필진을 중심으로 개진되었다(57%). 새로운 매체에 적합한 시각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리지의 형식에 대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응답자의 다수가 제기하였다. 이는 향후 지리지 편찬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리지 편찬사업에 대한 지리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지리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지리지에 대한 평가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지리학계 외부의 의견을 살펴본다면 이는 공급자 측면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지리지 편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

- 1) 1단계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리지를 발간하고 2단계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리지 발간한 후 3단계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제별 발간할 예정이다 밝혔다.
- 2) 문항 선택에 따라 선택적인 후속질문이 포함된 숫자로 대부분의 응답자의 경우 실제 응답문항수는 이보다 적었다
- 3) 1차와 2차 설문문의 응답자 수가 각 199명과 117명으로 82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설문간의 비교 시에는 각 설문 응답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로 비교하였다.
- 4) 이하에 제시된 분석에서는 이같이 1차 설문문의 응답자를 집단화한 후, 각 집단이 지리지 평가에 있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2차 설문문의 경우 응답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차 설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1차 설문문의 결과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 5) 석사과정생의 경우 전문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응답자수가 적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 6)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리지를 편찬하고, 향후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7) 시각자료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 응답자가 접한 지리지의 출판배포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 Chi, S.H., 2012, Examining foreign regional geography public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2012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nnual Meeting Papers*, 259-260 (지상현, 2012, 지리지 발간의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2012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9-260) (in Korean).
- Im, H.R., 2012, Direction and master plan of national policy for “the Geography of Korea”, *2012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nnual Meeting Papers*, 257-258 (임현량, 2012, 지리지 관련 국가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2012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7-258) (in Korean).
- Kim, I., Yu, W.I., Park, Y.H., Park, S.O., Yu, K.B., and Choi, B.S., 1994, Spatial problems of Korea: a delphi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 16-38 (김인·유우익·허우궁·박영한·박삼옥·유근배·최병선, 1994, 국토관리의 방향정립을 위한 국토진단: 전문가 집단의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9, 16-38) (in Korean).
- Kim, K.H., 2007, Old maps and historical geographical texts as materials of regional culture in Korea: focused on county old maps in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Quarterly*, 30, 119-142 (in Korean).
- Kwon, Y., Sohn, J., Ahn, Y.J., Lee, K.W., Lee, H.J., and Lee, H.S., 2012, An analysis on the regional geographies of eight countries for improving ‘the Geograph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7, 121-139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3, *The*

- Geography of Korea: Chungcheong*,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3, 한국지리지: 충청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4, *The Geography of Korea: Jeolla and Jeju*,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4, 한국지리지: 전라제주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5, *The Geography of Korea: Gyeongsang*,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5, 한국지리지: 경상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6, *The Geography of Korea: Gangwon*,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6, 한국지리지: 강원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7, *The Geography of Korea: Capital Area*,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7, 한국지리지: 수도권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08, *The Geography of Korea: General*, Suwon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리지: 총론편,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0, *The Geography of Korea: General*, Suwon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지: 총론,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4a, *The Geography of Korea: Province I*, Suwon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지: 지방편 I,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4b, *The Geography of Korea: Province II*, Suwon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지: 지방편 II,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5, *The Geography of Korea: Province III*, Suwon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지: 지방편 III, 수원) (in Korean).
- National Geography Institute, 1986, *The Geography of Korea: Province IV*, Suwon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리지: 지방편 IV, 수원) (in Korean).
- Oh, C.W. and Choi, J., 2012, Introduction of digital “the Geography of Korea” and use of storytelling method, 2012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Annual Meeting Papers*, 263-265 (오충원 · 최진무, 2012, 디지털 지리지 도입방안과 스토리텔링의 활용, 2012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3-265) (in Korean).
- Park, Y.H. 2004, On the new publication of ‘the Geography of Korea’,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ewsletter*, 81, 1-2 (박영한, 2004, 새로운 한국지리지 편찬에 즈음하여, 대한지리학회보, 81, 1-2) (in Korean).
- 교신: 신영호,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20동 국토문제연구소(이메일: syhgeo@snu.ac.kr, 전화: 02-880-6322)
- Correspondence: Young Ho Shin,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Bldg. 220,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syhgeo@snu.ac.kr, phone: +82-2-880-6322)
- 최초투고일 2012. 9. 6
수정일 2012.10.20
최종접수일 2012.10.28